

네가지 음성

악한 음성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훈련

FOUR VOICES

How They Affect Our Mind

이영희 지음
박연수 옮김

『네가지 음성, 악한 음성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훈련』

(*Four Voices, How They Affect Our Mind*)

지은이: 이영희

옮긴이: 박연수

영어 초판발행 2000년 1월 1일

한국어 초판발행 2013년 10월 1일

© 2013 이영희 (Yong Hui V. McDonald
also known as Vescinda McDonald)

표지 디자인: 르넷 맥클레인 (Lynette McClain)

표지 그림 그린이: 박영득 (Holly Weipz)

그린이: 버니 (Burnie)

주편집: 김성민

편집: 김성숙, 박영득, 강은아, 김승인 목사, 한명옥, Nadia Garcia,
Tiffany vining, Lacey McClain

표넨곳: 아도라 (Adora Productions)

ISBN: 978-1489582720

홈페이지: www.transf@gbgmchurches.gbgm-umc.org

이메일: yonghui.mcdonald@gmail.com

www.griefpathway.com,

한국 연락처: 이본 목사, 변화 프로젝트 부장

하늘문교회

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1388-15

우편번호 405-840

Cell: 010-2210-2504, 교회전화: 070-8278-2504

이메일: leeborn777@hanmail.net

홈페이지: <http://blog.daum.net/leeborn777>

(본문의 성경구절은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을 따랐습니다.)



(아도라는 스페인어로 Adora이고 영어로는 Adoration으로서 하나님
을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서 경배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
도라의 목적은 문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땅 끝까지 전
하여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치유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 글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칩니다.

감사의 글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신 박연수, 편집을 도와주신 김성민, 김성숙, 박영득, 김승인 목사님, 강은아, 한명옥, Nadia Garcia, Tiffany Vining, Lacey McClain과 아름다운 표지그림을 그려주신 박영득, 또 글을 일러스트레이 해주신 버니,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항상 기도하시며 격려를 해주시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시며 교도소 선교와 문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례

바치는 글
감사의 글
서문

1장: 네가지 음성 / 11

1. 자신의 음성
2. 타인의 음성
3. 악한 음성
4. 선한 음성
5. 우리의 선택

2장: 악한 음성 / 17

1. “사탄은 나에게 속삭였다” - 스토미 올튼
2. “형제의 부정적인 말” - 후렌시스카 케이루
3. “차 사고를 내라고 속삭이는 음성” - 루비 파딜라
4. “저주의 음성” - 카니 루슴

3장: 악한 음성에 저항하는 방법 / 25

4장: 선한 음성을 듣는 방법 / 29

5장: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 43

6장: 하나님의 여러가지 언어 / 65

1. 성경
2. 꿈
3. 환상
4. 몽환
5. 다른 언어들(방언)
6. 들을 수 있는 음성
7. 임재
8. 천사들
9. 성령님의 음성
10. 인지력
11. 지혜
12. 회개
13. 계시
14. 침묵
15. 자연
16. 증거와 기적
17. 동물들
18. 환경
19. 은사
20. 타인들
21. 격려의 글
22. 격려의 음악
23. 격려의 예술
24. 눈물

7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 87

8장: 음성에 대한 질문과 대답 / 91

9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_ 103

1.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 말본 빅스
2.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 레이래이 매뉴얼
3.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 디 엔덜슨
4. “조건없는 사랑” - 줄렛 와이어스

10장: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 이영희 / 111

1. 변화
2. 의혹의 음성
3. 응답
4. 혼란의 음성
5. 결핍
6. 순종
7. 축복
8. 인도
9. 하나님의 마음
10. 은혜

부록

예수님께로 초대 / 124

변화 프로젝트 / 127

하늘문선교회 / 128

재향 군인회 재단 / 128

저자 소개

그린이 소개

역자 소개

서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

1999년 사역을 시작한 후 많은 이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2000년 이 책을 쓰기 시작했지만 끝맺음을 하기까지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책을 먼저 쓰라고 하였고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 지에 대한 『영적부흥』이란 책이었는데, 후에 『나는 산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약 11년 후인 2011년, 오랜시간 같은 주제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고 나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나 사역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의 영적인 여행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나의 삶을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바꾸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목회를 인도하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사역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식하는

법을 알아야만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 할 수 있고 생동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도 변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물론이다. 나의 개인적 사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개인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나,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한 기다리고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방법에 대해 가르칠 수록 세 가지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중 악한 음성을 듣고 고통을 당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악한 음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다양한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많은 종류의 언어를 통해 우리와 대화하신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가지 언어와 방법으로 말씀

하시는지 설명함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마지막으로 분주한 삶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듣는 영적훈련이 필요하다. 그 영적훈련이 이 책에 들어있다.

이 책을 통하여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그 즐거움을 깨닫는 순간,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1장

네가지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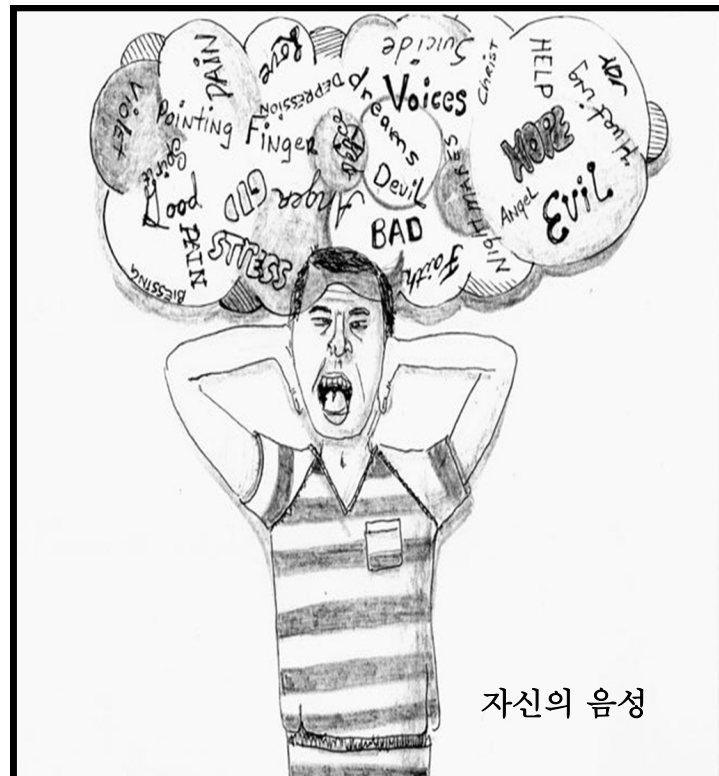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그들 자신의 것이며 “음성”이 사고를 통해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평안하고 생산적인 삶을 원한다면 “음성”에 대한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만일 우리가 음성과 사고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끼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네 가지 음성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음성 (2) 타인의 음성 (3) 악한 음성 - 파괴적이고 부정적임 (4) 선한 음성 - 생산적이고 긍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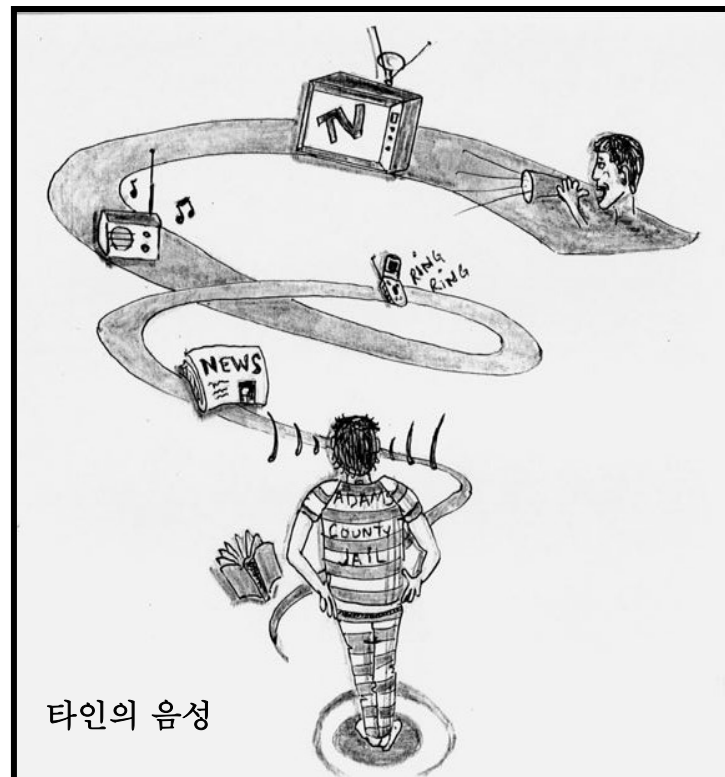
1. 자신의 음성

우리의 음성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의 결론적인 사고를 내릴 수 있다.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음성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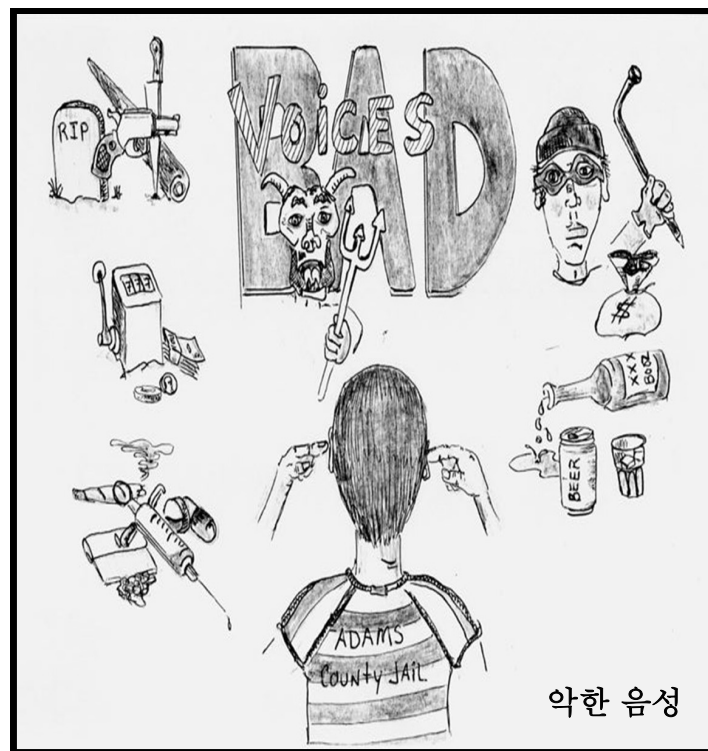
2. 타인의 음성

타인의 음성은 타인이 말하는 것이나, 타인의 마음을 읽거나 이해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음성은 좋거나 나쁠 수 있다. 이 음성은 종종 우리에게 대한 타인의 발언이 있을 때 표출된다. 그때 메세지들은 우리의 마음에 맴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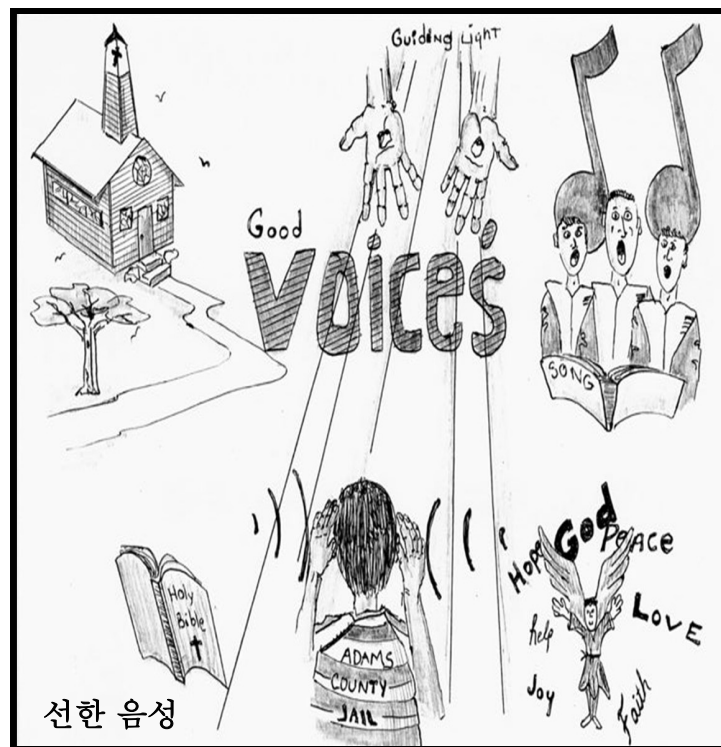
3. 악한 음성

악한 음성은 거부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쁜 곳으로 이끄는 음성이다. 이 음성을 이해하기에 따라 어떤 이는 악마의 음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나쁜 생각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음성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나쁜 것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 음성에 대항하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혼란과 죄에 빠질 수 있다.



4. 선한 음성

선한 음성은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천사의 음성 혹은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음성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항상 좋은 음성이다. 이 음성은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옳은 길로 인도한다.



우리의 선택

우리는 매일 선한 음성과 악한 음성의 영향을 받아 선택을 하게 된다. 악한 음성은 우리를 혼란과 고통의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는 이런 음성에 저항하고 거부할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악한 음성을 선택한다면, 우리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선한 음성은 자신과 타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평화롭게 이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한 음성”이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많은 이들이 두 음성의 차이를 알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 과연 어떤 음성에 귀기울이고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런 음성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명확히 깨달아 악한 음성에는 저항하고, 선한 음성은 받아들여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2장

악한 음성

모든 사람들이 악한 음성을 들으나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을 때 사악하고 부정적인 음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1. 학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

물리적, 정신적, 감정적, 성적 학대는 종종 분노, 화, 고통, 공포와 증오로 통하는 문을 연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악한 생각과 음성을 불러들이게 된다. 남을 용서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막을 수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기 위해 어떤 상처받는 상황으로부터 분리 되어야만 용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2.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의 슬픔, 허전함

사람들은 비탄에 빠졌을 때 비난, 분노, 화,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슬픔과 상실감을 일으키는 악한 음성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악한 음성과 생각들을 무시할 수 있도록 슬픔과 허전함에서 유발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3. 정신적 상처의 경험

사람들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면 부정적 음성을 불러들이는 화, 비난, 무력감과 같은 감정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께 상처의 치유를 간구하고, 용서할 때 그들의 치유는 가능하게 된다.

4. 우상숭배와 악마의식에 관련 된 경우

우상과 악마의식에 관련된 사람들은 악한 음성이 들어올 문을 열어 둔 사람이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치유를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선한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음성에 대항하고, 우상숭배와 악마의식에 연관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된 삶을 떠나야 한다.

5. 중독

중독에 고통 받는 사람들은 악한 음성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섹스와 폭력, 마약과 술과 같은 중독이다. 그들이 맑은 정신일 때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악한 생각은 중독적 행동에 자아를 잃었을 때 나타나게 된다. 처방약 또한 악한 음성을 유발하도록 사람의 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인의 사고를 통제 할 수 있도록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악한 음성이 사라지며 당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죄악에서의 삶

죄악의 삶을 살 때는 악한 음성이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한 생각은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이 들도록 한다. 우리는 명확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뇌 우치고 회개하며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7. 목표상실

우리가 주님보다 사람들과 사물을 더 사랑하면, 악한 음성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삶에 대한 목표의식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을 외면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라.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고 악한 음성을 불러들이기 쉽다.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알라. 이것이 당신을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 것이다.

8. 부도덕한 미디어와 게임

어떤 이들은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쇼를 보고, 난폭한 게임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행동들은 악한 음성을 불러들이게 된다. 이러한 행위들을 백해무익한 일이므로 피해야 한다. 나쁜 음성과 생각 대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타인을 섬김으로 선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9. 주변에 무신론자가 많을 때

주변에 낮은 도덕관을 가지고 거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은 악한 음성을 불러들이게 된다. 특히나 당신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타인을 헐뜯으며 비판적이고 부도덕한 이들과의 시간을 줄여야 한다. 당신과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신이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신앙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10. 분노와 무자비함

분노로 가득차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는 것은 악한 음성에게 친절함의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한 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자신과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 반항적이고 악한 음성은 당신이 비참함을 느끼도록 만든다. 타인을 용서함에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주님께 당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라. 예수님께 그분의 자비하심을 받기를 구하라.

악한 음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당신이 쓸모 없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음성

- 하나님을 포함해서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음성
- 포기하고 자해하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음성
-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음성
- 사람들을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라는 음성
- 하나님이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말하는 음성
-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니 기도가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음성
- 하나님께 분노하라는 음성
- 당신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음성
- 하나님과 타인을 증오하라고 말하는 음성
- 당신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음성
- 당신이 실패자이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

위의 악한 음성을 따르는 결과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자신과 타인을 상처 주거나 죽인 이들의 이야기를 신문지상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가? 따라서 이런 악한 음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에 대항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래의 글은 나쁜 음성을 들었고, 그에 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1. “사단은 나에게 속삭였다” - 스톰 울튼

그 당시 내 삶은 온통 잿빛으로 뒤덮여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때 남편은 10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여동생이 죽고 화재로 인해 나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다. 이런 큰 문제들에 짓눌려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법적

으로 문제가 생겨 아이들의 양육권을 뺏기고 설상가상으로
뇌경색이란 병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가족과 아이들
을 만나지도 못한 채, 일년이 넘도록 기도도 하지 않았다.

사탄이 나에게 “그들은 너를 사랑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다. 넌 완전하게 무용지물이다”라고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
다”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다섯 시간이 넘도록 기도했
다. 전에 화가 나서 하나님을 비난했고 나를 사랑하지 않
는다고 생각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았다. 하나
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
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은 삶이 엉망진창이 되기
전 까지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
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밤새 기도드
렸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다. 다음날 나는 체포되었다.
일년이 넘는 도망자 생활이 끝난 것이다. 사실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들이 나에게서 그 어느 때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다.

2. “형제의 부정적인 말” - 후렌시스카 케이루

“넌 너무 멍청하고 느려 터졌어. 넌 나빠.”

자라면서 형제에게 늘 듣던 말이었다. 매일 얼굴을 마주
하는 형제에게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성장기의
시기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되물었다.

“그것이 사실일까?” 대답은 “아니다”였다. 그 후 나의
목표를 달성함에 자긍심을 느끼고 나의 성취함을 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
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3. “차 사고를 내라고 속삭이는 음성” - 루비 파딜라

내 삶의 전부는 남자친구뿐이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음주에 빠져 내 아이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어느 날 내가 쓸모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을 듣고나니 무력감과 함께 정말 쓸모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밀려왔다. 그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최고 속력으로 달렸다. 나 자신이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눈물로 인해 도로를 볼 수도 없었다. 그저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며 타인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이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차 사고를 내라고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다. 나는 속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갑자기 마음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꼈고 용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결국 무사히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평안이 나를 감싸며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짐을 느꼈다. 눈물도 즉시 사라졌다.

4. “저주의 음성” - 카니 루شم

“도망쳐! 이곳에서 도망쳐봤자 아무 문제도 없어. 하나님은 너 따위를 위로해줄 만큼 한가한 분이 아냐. 잘 생각해봐. 널 사랑한다면 여기까지 오도록 팽개칠리가 없잖아.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거라구.”

반향적인 저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병원에서 도망친 후 두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 “왜 저 입니까?”하고 물었다.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저주하며 복수를 다짐했다. 도망친 다음날 중범죄자들이 많은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23시간 동안 독방에 갇혀있을 때 치유의 빛이 나를 찾아왔다. 내 어깨의 무거운 짐들이 나의 육신을 약하게 한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평안을 찾기 위해 아침 TV에서 조이스 마이여 프로그램을 봤다. 성령님은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셨고 사실 그동안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복종하지 않았던 나를 변화시켜주셨다. 오랜 수감생활로 지친 나에게는 희망적이고 함께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목사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간청했다. 나의 기도는 응답 받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졌다.

결론

우리 모두는 내면에 선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로부터의 선한 음성을 기억할 수 있다. 좋은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음성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음성이다. 주님의 음성은 또한 용서의 음성이기도 하다.

인간은 타인의 언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쁜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다. 우리는 이런 음성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위해 악한 음성에 저항하고, 선한 음성을 따라야 한다. 악한 음성은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떠한 음성도 거부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음성에도 저항해야 한다.

3장

악한 음성에 저항하는 방법

모든 사람의 생각은 여러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악한 음성을 듣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1. 어떻게 악한 음성에 저항할 수 있는가?

(1)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지혜로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악한 생각들에 저항하고 당신의 음성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옳은 결정을 하고, 선하고 평화로우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2) 성경 말씀으로 저항하라

성경읽기를 시작하고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능력이 있다. 성경을 읽고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수록 당신은 더 강해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 분께 도움을 청하라. 환란의 시간에 평안을 찾도록 도와 주실 것이다. 악한 음성을 거부하고 다음의 구절을 암송하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누가복음 4:18~19).

(3) 침묵 훈련

존은 어릴 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저주의 말들로 인해 고통받았다. 그녀는 그것을 멈추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에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다. 결국 그녀는 생각하는 것을 절제함으로써 그런 음성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이다. 침묵훈련은 마음에 평안을 구하는데 절대적이다. 침묵하는 것을 연습하면, 당신의 생각을 진보시키고 생각을 정돈하게 됨으로써 잘못된 생각도 제어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도: “주님, 제가 듣고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

(4) 용서

삶의 상처가 깊고 치유가 필요한 이들은 악한 음성에 훨씬 노출되기 쉽다. 분노, 비탄, 증오의 감정은 악한 음성의 친절 한 벗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와 당신 자신을 용서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열어 주셨다.

기도: “예수님, 저의 죄를 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괴롭힌 자들과 저 자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자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상처와 괴로운 기억들로부터 저를 치

유하여 주세요. 당신의 사랑과 평안, 기쁨과 동정심을 나의 가슴에 채워주세요. 당신의 사랑과 너그러움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 영적전쟁의 이해

악한 음성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당신이 악한 음성에 저항하려 할 때 금방 떠나지 않고 더 당신에게 고통을 주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말라. 주님의 힘으로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명확한 방법을 알려주는 바울의 성서에 있는 글귀를 통해 어떤 점에서 노력해야 하는지 알아내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에베소서 6:10~18).

기도: “성령님, 악한 음성에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언을 수 있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주님 안에서 강건
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악한 음성에 괴롭힘을 당할 때 예수님께 의지해서 악에
대항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라.

2. 얼마나 오래동안 악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악한
음성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악한 음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
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인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질 수 있다. 또한 영적훈련을 통해 선한 음
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 예수님은 우리
에게 악령에 대항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
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9:1).

3. 왜 악한 음성에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음성과 선한 음성을 선택할 자
유의지를 주셨다. 악한 음성을 따른 결과는 해서는 안될 일
들을 하게 되므로 결국 고통스럽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용
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마음
의 평강을 회복시키신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영적 전쟁에
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역시 악한 음성을 거부하고 승리할
수 있다.

4장

선한 음성을 듣는 방법

우리가 듣는 음성들을 제어할 수 있는가?

그렇다. 훈련으로 가능하다. 악한 음성을 차단하고 선한 음성을 듣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선한 음성을 듣는 방법

1. 성경읽기

선한 음성을 좀더 많이 듣게 되는 이유는 올바른 영성훈련의 결과이다. 성경읽기는 선한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당신 마음속에 성경이 들려올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마음에 선한 생각의 씨를 뿌릴 필요가 있다. 30일간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라. 추가로 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 읽기를 시작하라.

매일 30분간 성경을 읽고, 다음 30일간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라. 성경말씀은 악한 음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 30일 후에도 성경 읽기를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인간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알게 되면 악한 음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읽기의 중요한 이유이다. 만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기도: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아가 고통 받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2. 기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준다. 선한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음성의 원천이시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선하고 악한 음성의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이 커진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수단이다. 많은 이들은 기도가 단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기도: “주님, 듣고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과 도우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조용한 가운데 들어라. 처음에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어려우나 연습을 계속하면 가능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 또한 응답을 여쭙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기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적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과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내용들의 이미지를 적어라. 때때로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성경말씀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추가로 당신이 하나님께 원한 내용들을 적어라. 당신이 응답 받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기록해라. 또 그 대답이 성경구절이 될 수도 있다. 한달 정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올바르게 들었는지 아닌지 그것을 뒤돌아 보라.

기도: “주님, 나에게 임하소서. 제 마음을 엽니다. 사탄의 유혹과 악한 음성에 저항하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선악을 깨닫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당신 안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는데 도움을 준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27)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밝히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거나 듣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해하거나, 공허함, 목표의식 상실 등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다. 우

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순종할 때 삶의 목적과 충만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순종의 열쇠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3). 추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쓴 편지와 복음서들을 읽어라.

기도: “주님, 이 구절을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응답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응답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응답을 듣기까지는 일천번제를 드렸음을 기억하라 (열왕기상 3:1~15).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매일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당신의 사랑을 알려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러브레터를 노트에 기록하고 작성해라. 이런 방법을 통해 선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연습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기를 권한다.

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긍정적인 생각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많은 악한 음성들이 있다. 자신과 다른 이에 대한 비판적이고 감정적인 생각들을 없애라.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8). 당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라. 만약 당신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나쁜 태도를 가졌다면, 그런 비판적인 생각들을 버려라. 우리의 문화는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치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투영시킬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 주님께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라.

기도: “주님, 당신의 관점으로 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당신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우리내면의 음성은 선과 악, 두 가지이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음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사랑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음성은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나쁜 것들만 보도

록 만드는 우리 죄의 본능이다. 방심하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대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하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자신을 대하라.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타인을 대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것이다.

기도: “주님, 자신과 저에게 해를 끼친 타인까지도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도와 주세요. 저에게 상처준 모든 이를 용서합니다.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자신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를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5. 침묵연습과 마음의 정돈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생각하는 침묵을 연습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7).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음성채널을 닫고 침묵채널을 열어두어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므로 처음에는 모두 어려워한다. 그렇지만 침묵은 당신의 청력과 심안을 향상시켜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루에 15분씩 사고의 침묵을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기도: “주님, 제가 듣고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침묵 속에서 듣는 것을 연습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는 것만큼 침묵이 쉬워질 것이다. 한동안 주님으로부터 아무

것도 듣지 못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렸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당신이 선한 길을 걷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돕는 선한 일들을 하도록 당신을 이끌 것이다. 혼란과 어둠에서 벗어나 그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6. 외부로부터의 음성 통제

외부를 통해 듣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외부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기도: “주님, 제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구별할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당신을 위한 큰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1) 선한 언어를 사용할 것

가장 많이 듣는 음성은 바로 당신 자신의 음성이다. 자신과 타인에게 좋은 말과 격려의 말을 하라. 우리는 타인을 격려하는 말을 통해 그들이 내면의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대화할 때 비판적이거나 비난적인 단어는 피하라. 왜냐하면 당신의 언어가 그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특히 당신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비판적일 때 말하기 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

(2) 긍정적인 사람 찾기

누구에게든지 선하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도록 노력하라. 이것은 정신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다. 격려의 말은 선한 음성이다. 이러한 음성은 자신에 대하여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며 영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 삶을 사는 사람들 주위에 있다면 그들로부터 듣는 말들은 선한 음성이 될 것이다.

(3) 부정적인 사람들 피하기

당신에 대해 이유 없이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이런 사람들은 고통과 소란을 유발해서 평안을 깨트린다.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말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다. 부정적인 언어들은 마음속에 자리잡아서 악한 음성이 될 수가 있다. 불행하게도 가족 중에도 이런 악한 음성을 가진 이가 있을 수 있다. 그들도 악한 음성을 듣는 피해자이며,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모르는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4) 영감을 주는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선하고 교육적인 내용의 TV나 영화를 보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어라.

뉴스를 듣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뉴스를 들을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다. 높은 도덕가치를 추구하는 성경과 같은 좋은 책과 영감을 주는 교육적인 책들을 읽어라. 부도덕한 사고를 유발하는 좋지 않은 책들은 멀리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지 않은 책은

읽지 말라. 선한 음성의 말씀을 고르고, 폭력, 섹스, 폭언 등을 포함한 나쁜 내용들을 보고 듣는 것을 피하라.

(5) 교회 출석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선한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이든 듣고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 모임에 참여 함으로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

7. 묵상

당신을 영적으로 돕고 격려하는 성경구절들을 적어서 벽에 붙이거나 암송하기 위해 지갑에 넣고 다녀라. 구절을 암송할 수록 더 많은 선한 음성을 듣고, 평안함과 격려를 얻을 것이다. 주님께 어떤 구절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여쭙어라.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께 성경구절을 주시기를 청하여라.

기도: “주님, 당신의 격려와 평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구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후에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성경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라.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느끼면, 묵상할 다른 성경구절을 주님께 여쭙고, 받은 성경구절을 외워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8. 고통스런 생각에서의 치유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파일이 들어 있는 방과 같다. 좋은 기억이 들어있는 파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파일은 고통스럽고 나쁜 기억을 보관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기억에 집중할 수록 더욱더 악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나씩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자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혼란으로 고통받는 마음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기도: “주님, 나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화를 내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또 고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9. 당신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이를 용서하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악한 음성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모두를 용서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셨다.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라. 그것은 학대당하거나 위협한 폭력적인 상황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악한 상황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사회단체에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용서는 과거경험에 대한 용서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자신과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용서를 할 수록 선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기도: “주님, 저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게 하셔서 저를 낮추고, 자신과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후회할 만한 죄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저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당신과 저의 관계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해 주세요.”

10.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선지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만약 당신과 다른 이들의 믿음을 키우게 하는 권고의 음성을 듣거나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말씀일 수가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선한 음성을 무시하면, 당신이 귀기울일 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다. 순종할 때 당신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선한 음성을 통한 영적 통찰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참회록을 쓰거나 죄들을 하나씩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간을 가져라.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라.

기도: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저에게 보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제

가 성령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당신의 기준에 따라 선악을 구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38).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선한 음성을 듣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1. 영성일기를 적고, 꿈 해석을 간청하라

선한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활성화 해야 한다. 주님과 동행할 노트와 일기장을 준비하라. 기도를 적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라. 또한 꿈을 적고, 주님께 해석을 맡겨라.

기도: “주님, 제가 이 꿈을 꾀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신지요?”

기도 후에 마음을 정돈시키고 침묵가운데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을 적어라. 이런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해도 계속해서 간구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꿈을 꾸게 하신다. 꿈을 통해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를 보여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 어려움이나 즐거움을 준비하거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라. 사탄은 악몽을 통해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기도는 그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러나 모든 악몽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시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12. 다른 이들을 섬겨라

명확한 목표의식이 없는 이들은 악한 음성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지를 배우고,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라.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 것은 성령님의 선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상처 입은 이들을 사랑하는 그 분의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악한 생각과 음성에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11~14).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삶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는 데 그 삶을 이용해야 한다. 사회단체나 교회, 혹은 선교에 자원해 다른 이들을 도와라. 선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보여 주신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등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혈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의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혈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뱐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36~40)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기도: “주님, 저의 삶과 모든 것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뜻하신 계획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당신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요?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셔서 명확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선한 이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제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당신께서 저에 대한 더 큰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알기에 저의 계획을 버립니다.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돕고 당신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많은 이들을 예수님게로 데려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5장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생각으로 오는 선한 음성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분의 의를 따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

하나님은 우리모두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므로 모두가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안테나와 같은 내부 소통로를 만드셔서 원할 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 원하신다. 사고, 지능, 감정, 욕구, 지각과 같은 각기 다른 음성들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마귀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음성 아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밝아질 수 있는가?

바울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기를 기도했다. “밝힘”이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이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믿는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며”(에베소서 1:18) 라고 바울은 기도했다. 마음의 눈은 영혼이며,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눈을 뜨게 도와 주실 수 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가?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는 한 그것은 비합리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으로부터 영적 진실을 받아 들여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우리는 분별력을 사용한다. 우리의 “지각”이 실수를 했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기분이 나빠짐을 느낀다. 모든 이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각은 제 각각이다.

우리의 지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밝아질 수 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전혀 새로운 이해의 장이 열리게 된다. 논리와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던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바울은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린도전서 2:9~16)라고 바울은 썼다.

바울은 담대하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이 이해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하고 대화 할 수 있도록 “영혼”이라는 통로를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의 집중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비례한다. 듣고자 하는 열망과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분의 음성을 더욱 더 많이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따름으로써 거부하고 무시할 수도 있다. 주파수를 맞추고 집중하라. 다음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1.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

충만함이 사라지고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여쭙는 시간을 가져라. 종종 하나님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심으로 나의 주의를 요구하셨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나는 기도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요?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후 주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침묵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의 경험상 그럴 때마다 내게 임무를 주시거나 나의 행동변화를 원하셨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듣는 시간의 중요함을 배웠다.

2. 삶의 공허함을 느낄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낄 때 다음 질문들을 살펴보아라.

(1) 당신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2) 최선을 다해 은사를 사용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3) 다른 이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4) 주님의 성품을 자신에게서 발전시키고 있는가?

첫째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 버리고 있을 수 있다. 만약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분을 초대할 수도 있다.

기도: “주님, 당신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마음에 임해 주세요. 저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허전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라. 특히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

한복음)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할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라.

기도: “성령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두번째 주님과 친밀한 관계임에도 허전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전심으로 당신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자신과 가족들에게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당신만을 위한 삶이다. 자신의 은사를 충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울 방법을 교회나 교회 밖에서 찾아 보라.

기도: “성령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문을 열어 주세요.”

셋째 본인의 시간을 대부분 어디에 사용하는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와 생활태도에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기 바란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기 원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19~26).

만일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이라면 당신은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네번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 노력하며 순종하는 성화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는가를 배우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주면 공허한 마음이 있을 공간이 없어지게 된다.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할 때 자기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만족을 할 수 없고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라는 것을 배우고 나 자신의 연약함은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것은 깨닫고 변화하려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중요시 여기는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말씀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워라.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마음을 풍요하게 해준다.

기도: “주님, 제가 삶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바뀌어야 할 점을 가르쳐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저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3.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잠시 요청하는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보아라.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라. 기다리는 동안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기도를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려라. 당신이 누구를 용서해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일수도 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

기도: “주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왜 저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고 느껴지는지요? 저의 삶에서 변화 되어 될 것들이 있는지요? 제발 제게 말씀해 주세요.”

4. 염려의 감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곤경에 처하고 위기에 닥치면 염려와 낙심으로 고통받게 된다. 이런 감정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시며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치유를 위해 그분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만약 모든 일이 잘 풀려감에도 당신이 평안을 못 느낀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찾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때로는 당신이 영적으로 고갈되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신호를 주실 때도 있다.

5. 슬픈 감정과 기쁨의 결핍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 다른 이들을 섬김에서 나온다. 당신이 우울하거나 기쁨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의 항목을 살펴보고 당신이 어디에 부합되는지 알아보라.

(1)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기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정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을 찾게 되고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다. 만약 당신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더 배우기 위해 성경을 읽을 때이다.

(2) 기도의 부족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갖지 못했을 때 기쁨은 사라진다. 침묵 속에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라.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3) 섬김의 은총을 사용하지 않을 때

주님을 섬기는 은총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전심으로 각자 받은 섬김의 은총을 사용하지 않아서 섬김의 기쁨을 잃어 버린다. 당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4) 슬픔과 상심에 잠겨 있을 때

사랑하는 이를 잃었거나 뭔가를 상실했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슬픔과 관련된 모든 감정들을 살펴야 한다. 치유 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평안과 기쁨을 찾을 것이다.

(5) 용서가 필요할 때

화가 나서 용서를 할 수 없거나 용서를 할 마음이 없을 때가 있다. 용서하기 전까지 분노는 당신의 마음과 삶을 조정할 것이다. 분노는 기쁨을 가져오지 않는다. 분노는 슬픔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오고, 우리의 평안을 앗아간다.

(6)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을 때

기쁨과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건이나 사람일 경우 그 감정은 한계가 있다. 이런 종류의 기쁨은 일시적이다. 완전한 기쁨을 가지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7) 성령충만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성령님은 영적 기쁨으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분과 함께 할 때, 종종 성령님이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은 넘치는 기쁨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출판을 준비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외에는 줄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 때,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진정하게 해 주세요.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감당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런 후 하나님은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성령님께서 확인으로 주신 기쁨임을 알았다.

6. 우울한 감정

당신이 우울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당신의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목사, 신부, 전문상담사와 상담해라.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아래에 열거된 몇가지 이유들을 읽어보라.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여쭙어라.

(1)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만약 화학적 혹은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당신의 정신과 감정과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신의 주치의에게 물어보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2) 죄악 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죄악의 삶을 살 때, 평안이나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만약 당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며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님이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 “주님, 저에게 고쳐야 할 죄가 있다면 변화되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신앙적이고 집착적인 행동이나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도와주세요.”

집착 대신 슬픔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용서해야 한다. 분노, 비통함 그리고 증오를 버려라. 그래야 슬픔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3) 뒤뜰린 생각(악한 음성)으로부터 고통 받을 때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경우 사탄의 파괴적인 음성을 알아차리도록 훈련 받지 못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들로 고통을 받는다. 그런 악한 음성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다. 악한 음성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발버둥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속삭인다.

이런 악한 음성은 성경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성경을 읽을 때 방해하려는 음성도 거부하라. 소망 없다는 생각과 무력하다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경읽기를 계속하라.

또한 당신을 괴롭히는 악령들로부터 해방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함으로 당신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바울이 쓴 것을 암송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기도: “주님,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우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희망과 안정, 치유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저와 함께 있고 제 곁에 항상 계셔서 감사합니다.”

(4)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심리적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울함 속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에 저항하고, 성경읽기를 시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다.

(5) 누군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주고 치유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미 죽은 사람과 당신이 아끼는 모든 이들을 포함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필요가 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관련 된 모든 욕구와 고통을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기도: “주님, 전 상처받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사랑하는 이를 당신께 보냅니다. 저의 상처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잃은 것 보다는 받은 축복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 학대받는 상황에 있을 때

당신이 학대받는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다. 학대를 멈추기 위한 적절한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울증이 원인이라면 당신은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 지도 모른다.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당신의 삶과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를 얻길 구하면서 삶에서 변해야 하는 것들도 있는가를 여쭙어 보라.

7. 교만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부족할 때 남을 무시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잘못 대하는 것은 죄의 삶이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마음에 가득 차도록 기도하라. 주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어라.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성경말씀을 복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말씀하실 것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은 평안을 찾는 방법이다.

8. 혼란을 느낄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혼란을 겪는 이들은 대부분 타인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을 읽고 혼란스러운 음성에 저항하는 것이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지를 도와 주실 것이다.

기도: “성령님, 깨끗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천사를 제 주위에 두셔서 모든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가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해답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응답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져라. 꾸준한 기도는 응답 받을 것이며, 당신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향을 간구하라. 그 후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려 할 때 당신 마음에 저항감이 있는지를 보라. 만약 기도 후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다리고 듣고, 주님께 나아갈 방향을 간구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9.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감정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입었거나 당신이 사랑 받을 자격이 없으며 전혀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악한 음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요한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에 대하여 말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1서 4:10~13).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증오의 감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제하고, 떠나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

10. 중압감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문제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 중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문제들을 하나 하나씩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해결하라.

기도: “주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11. 중독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끼며, 세상에 집착함으로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면,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술, 마약, 폭력 등에 시달린다면 하나님께 고백서를 쓰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라.

기도: “주님,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당신을 멀리한 세월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중독적이고 집착적이며, 죄악이 가득한 삶을 용서해 주세요. 파괴적인 것들로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술과 마약,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신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고통을 마비시키거나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마약이나

폭력을 사용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14~15).

중독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치유를 위해 주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욕구가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23).

중독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끊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결정을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라.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유함을 얻었다.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12. 불만

하나님은 당신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 그것은 당신의 직업을 바꾸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말이나 생활태도의 변화일 수도 있다. 변화되면,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을 행복과 만족함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김으로부터 나온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

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립보서 4:12). 우리는 모든 것을 베푸시는 주님께 의지함으로 만족을 얻는 법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다.

기도: “주님, 제가 변할 것이 있다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13. 자신감 부족

자신의 지혜와 능력,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다. 바울은 자신 있게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다른 이들을 격려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사도행전 27:25).

그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부름에 따랐고, 예수님은 그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자신감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격려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5~9).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어느 때든 이 성경구절을 읽고 주님께 순종하라.

14.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에 비추어보아 우리의 기도제목이 이기적이거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옳은 분이심을 기억하라.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고 고요함 속에서 들어라. 항상 고요함 속에서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걸으면서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마음을 정돈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

15. 하나님을 섬기려는 욕구가 부족함을 느낄 때

당신의 잃어 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부족함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복음을 나누고 싶은 열망과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로 결정하고 추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께 그런 열망을 주실 것

이다. 내가 미온적 신앙에 고민할 때에는 잃어 버린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욕구나 열망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로 결심한 후 잃어 버린 영혼들은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열망을 주셨다.

16. 고통과 슬픔, 상실감에 젖어 있다는 느낌

하나님은 당신의 아픈 상처를 치유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이다. 슬픔, 분노, 비탄, 비난, 유감, 용서, 집착 등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치유가 가능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다시 찾으시도록 하실 수 있다.

17.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

때로는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타인을 의존하여 항상 격려와 수고를 절박하게 찾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의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격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분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한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격려와 평강을 맛볼 것이다. 예수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을 격려하셨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

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사도행전 18:9~11).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타인을 통해서도 격려하신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타인의 격려만을 찾는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격려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라. 타인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버려라. 외롭거나 용기가 없어질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붙드시는 주님께 의지하라.

18.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나가야 할 방향을 배우기 바란다. 예수님을 알아가라. 그 분만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도울 수 있다.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명확한 방향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최우선이다. 성령님께 당신이 부르심 받은 것을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하라. 당신이 받은 은사를 찾아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당신이 받은 은사에 달려있다. 기다리지 말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교회 안과 밖에서 찾아라. 당신이 섬길 때, 삶의 방향은 명확해질 것이다.

19. 훈계 받는 느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훈계하신다고 느끼게 함으로 그분께 집중케 하신다. 만약 듣고 순종한다면 축복 받을 것이나 만약 당신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평안은 사라질 것이다. 평안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의 한 종류로서, 훈계하실 것이 있다는 증거이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5~9).

20.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적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것이 깨달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기도: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당신의 뜻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
도록 도와 주세요.”

21.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
나님은 당신에게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신다. 용서를 구하
고 더 이상 죄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회개 후에 당신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용서하
시고 정죄하시지 않는다 (로마서 8:1). 성령님은 우리의 죄
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께 들어야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사탄은 과거의 죄를 들추어서 사람들을 괴롭
히고 비난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지
않을 거라는 음성을 거부하라. 하나님의 용서에 의지하고,
비난하는 음성을 받아 들이지 말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
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
실 것이요” (요한1서 1:9).

22.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느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그 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이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
령님이 우리에게 평안, 기쁨, 사랑, 믿음을 주실 때 그 깊이
는 다른 어떤 감정이나 감각과는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이
는 이것을 기쁨의 바다, 사랑의 담요, 혹은 사랑의 둘러싸
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6장

하나님의 여러가지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많은 언어들이 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한 음성이다. 사람들은 얼굴표정이나 수신호, 음성, 몸짓과 같은 비음성적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언어를 갖고 계시므로 집중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1~3).

다음은 성경말씀과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과 사역에서 배운 하나님의 언어들이다.

1. 성경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를 말해준다. 성경은 영적 지혜와 지식, 분별력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초적인 것이다. 성경말씀을 모르면서 그분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이들을 변화시켰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 그가 한 말들을 후회했다. 천사가 성경을 “진리의 글”이라고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다니엘 10:2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1~2).

성령님이 이 성경구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실 것이며 지켜 주실 것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방향을 알려주는 성경을 기억할 때에는 그것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2. 꿈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자주 사용하시나, 많은 이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수기 12:6).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꿈 해석을 주시기도 한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다른 이들의 꿈을 해석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창세기 40:1~23).

야콥은 꿈을 꾸었고, 꿈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야콥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 하신지라. 야콥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콥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콥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10~22).

야곱은 또한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였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알리라는 허락을 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나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기억, 생각, 환경, 생활방식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탄 또한 악몽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

기도와 성경을 통한 주님 알기, 주님께 의지하기 등의 방법을 통해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만약 죄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치유를 위해 주님께 돌아가 회개해야 한다.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영적 성장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는 없다. 때로는 사탄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악몽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 질수록 당신은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이며, 악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3. 환상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 주님을 보았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1~5).

환상을 보는 것은 성령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17).

환상의 종류는 세 가지다.

- (1)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보는 환상
- (2) 꿈을 통해 보는 환상
- (3) 마음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환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은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환상을 볼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 해석을 간구해야 한다.

사탄 또한 환상, 이미지, 심리적 그림 등을 통해 우리를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죄악으로 이끄는 것들을 주기도 한다. 당신이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그런 환상을 볼 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로 둘러싸 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하라.

4. 몽환

이것은 깨어난 것과 잠든 것의 중간 단계이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이것을 경험했다. 그가 몽환 상태에 있을 때 그는 환상을 보았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사도행전 10:9~16)라고 성경은 말한다.

눈을 감거나 뜬 상태, 혹은 완전히 깨어있거나 잠들었을 때, 심지어 몽환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환상이나 심리적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길 원하셨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사도행전 10:34~35).

5. 다른 언어들(방언)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메세지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 은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사도행전 2:1~8)

하나님의 메세지를 선포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방언도 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은 언어의 은사이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2).

6. 청취가능한 음성

모세가 불타는 수풀을 보았을 때, 그는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았다. 그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그가 성스러운 땅에 서 있기에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셨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차례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청취 가능한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상 3:8~11).

7. 임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중 한 가지이다. 솔로몬이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나타나셨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편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시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역대하 5:13~6:2).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시기도한다.

8. 천사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신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

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옹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사도행전 10:1~6).

내가 꿈에서 천사를 보았을 때, 세상에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모든 이들을 동일한 아름다움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9. 성령님의 음성

어느날 우리 마음 속에 선한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11~13).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보혜사, 선생, 위안자, 지도자, 안내자라고 가르치신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

버지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5~17).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6)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성령님의 확증으로 충만함, 평안, 기쁨을 느낄 수 있다.

10. 인지력

하나님은 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깨달아지도록 인지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바울은 영적 인지력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바울의 글들이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이유는 그가 영적 인지력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애썼는지를 알 수 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7~8).

11.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성경은 오랫동안 나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나의 삶은 바뀌었다. 바울은 영적 지혜를 통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 지를 말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12~14).

어느날 재소자들의 기도 모임을 주관하고 있을 때 마지막 순서에서 한 여성이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녀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고 우리는 그녀에게 보여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일주일 후 내가 다시 방문했을 때 그녀가 미소를 띄우며 다가와서 말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한 이후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던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와 닿고 다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

12. 회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에베소서 4:30~32절에서 우리들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1서 1:9).

13. 계시

계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거나 하나님이 공유하기 원하시는 것과 영적 실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이야기이다. 바울은 다른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17~18).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1~3).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14. 침묵

침묵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흩어지게 된다. 정결한 마음과 침묵으로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마음을 깨끗게 하고 침묵을 연습할 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10~11).

15. 자연

하나님은 자연(천둥, 번개, 구름, 연기, 불 등)을 통해 현존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뽁뽁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

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웅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출애굽기 19:16~19).

이 자연의 아름다움 또한 창조주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말해 주고 있다.

16. 증거와 기적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시는 동안 큰 기적과 증거들을 보여 주셨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신명기 4:32~36).

주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 속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누가복음 4:18~19).

과연 영적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이가 있을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17. 동물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이용하신다.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당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썼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베드로후서 2:16).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밭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와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밭람의 밭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밭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와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밭람 밑에 엎드리니 밭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밭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

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민수기 22:23~34).

18. 환경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문은 닫으시고 예상하지 못한 문을 열고 계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다. 바울의 선교여행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가끔은 문을 닫게도 하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인해 특정 장소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사도행전 16:7~10).

때때로 성령님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것을 하라고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순종할 때 더 유익할 수 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고난을 겪기도 하고 타인의 실수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차단될 수는 없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들과 함께 사는 것도 삶의 일부인 것이다.

바울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린도전서 15:33~3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19. 은사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이며, 은사를 받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남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우리가 받은 영적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8~11).

20. 타인들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는 후회하고 하나님께 그가 저지른 일을 해결할 방법을 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죄를 덮으려 했다.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밋세바)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27).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사무엘하 12:1).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번 경우에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밝히시고 뉘우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악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무너져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만약 당신이 죄악을 저지르면, 일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겠지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성숙한 기독교

인은 당신에게 상황을 정리하라고 말할 것이다. 가족, 친척, 친구와 같은 이들이 이런 조언을 할 때 당신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야 한다.

회개와 변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해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이를 찾아보라고 제안했고, 모세는 그에 따랐다 (출애굽기 18:13~16).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21. 격려의 글

성령님은 다른 사람의 간증과 격려의 글을 통해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은 당신이 읽을 때 감동과 복을 줄 수 있다.

사실 우리의 간증은 단순히 일어난 일의 서술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증거하는 일이므로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 또한 다른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들의 간증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격려로 쓰여진 책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며 깊은 참회를 하게 만든다.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과 마음의 울림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다. 그 치유의 손길에 온전히 당신을 맡기라.

우리가 겪는 고통과 상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쓸모가 있는지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헛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므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적은 책을 통해서도 결코 이런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이런 책들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2. 격려의 음악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가? 종종 당신의 눈에 고인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든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주님의 선하신 음성을 경험하게 한다. First Love Harvest Church의 선회 목사님은, 은혜로운 찬송가는 교인들에게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선곡할 때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23. 격려의 예술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러한 창조성과 창조의 열망을 부여 받았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특정인에게 자신을 영화롭게 할 건축물을 지을 영감을 부어주신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예술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언젠가 내가 뉴욕에서 목사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예수

님을 주제로 한 다양한 나라의 각기 다른 종류의 예술품이 전시된 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감동이 온 몸에 전해지며 전율이 흘렀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 작품을 통해 강력하게 느껴진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그 느낌은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예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다.

24. 눈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말씀하신다. 화가 나거나 분노했을 때 흘리는 눈물이 아닌 깨달음을 주실 때 나오는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 속 깊이 복받쳐 오르는 감동과 벅차오름으로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 이런 눈물은 마른 땅에 단비 같은 눈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정결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호세아 10:11~13).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흘리는 눈물은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이 있다. 그 눈물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의 땅을 적시고 일구시기 시작하신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죄악으로 슬퍼한다. 낮은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하심을 알려주며 기쁨을 주신다.

이런 경우 눈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선물이며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도와주신다.

7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1.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단계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 드리는 시간을 차츰 늘려가야 한다. 또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침묵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2.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단계

멀리 계신 하나님, 친밀하지 못한 관계에서 느껴지는 허전함으로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과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결국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곁에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심을 느끼고 알게 될 것이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며 당신의 영적감각이 성장하게 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3.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는 단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더욱 더 커지는 단계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에 대한 증거를 구하지만 침묵을 경험하고 더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 참음과 인내가 요구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3). 성경읽기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그분의 언어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 성령님께 당신의 마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감각의 일깨움으로 주의를 끄는 법을 알고 계신다. 요한 계시록 1장에서 3장을 읽어라. 거기서 예수님이 각각의 다른 영적 리더를 그들의 영적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쓰셨는지를 이해하라. 기도의 시간을 늘려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도와준다.

4. 기다리고 듣는 법을 알게 되는 단계

당신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지만,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다리고 듣기를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인내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린다면 어느 순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 혹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때와 장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 당신은 기다리고 듣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를 진실로 원하는 자는 결국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기다려라.

5.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에 놀라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탄하다. 하나님이 주신사명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명은 평소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불평과 논쟁을 접고 귀기울이는 순간이 온다.

하나님은 당신과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 당신이 주님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6. 주님과 대화하는 단계

당신이 주님께 간구할 때, 즉시 응답하신다면 기도는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멋진 일이 될까? 아마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어질 것이다. 것처럼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감이 자라고 더 이상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불안하거나 초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당신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들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그 분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특별한 공급법칙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수록 당신에게 요청하신 일들을 순종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그러나 순종하려는 의지가 커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된다. 이것이 우

리가 찾고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랑의 관계이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즉시 알아차리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성령님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긍휼함을 느끼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과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예전의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쁨과 평안은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이다.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될 것이다.

8장

음성에 대한 질문과 대답

1.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의 영적 훈련들을 따르라. 하루 30분씩 성경을 읽으라. 혹은 30일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루에 복음서 하나씩 읽어보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록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영적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주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피하라. 타인과의 비신앙적인 대화와 세상적 유흥을 멀리하는 법을 배우라. 침묵 속에서 듣는 법을 연습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할 일

침묵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분의 음성을

들을 많은 기회가 있어도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기도: “성령님,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제 삶에서 회개하거나 바꾸어야 할 무엇이 있다면 제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하나님은 많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니 성경읽기를 계속 하라. 기다리는 동안 침묵하는 것을 연습하라. 그래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3.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꿈을 꿀 때마다 기록하고, 하나님께 해석을 간구하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해석을 주시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몽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꾸준히 기다리라.

4.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분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인간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 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도, 동기까지 알고, 이해하신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 보

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139:1~7)라고 썼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고통과 환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며, 관계회복을 위한 일들을 할 때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5.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분의 시간과 의지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안돼”라고 말씀하시면 기도를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래”라고 말씀하신다면 응답 전이라 할지라도 미리 감사드릴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과 말씀에 대한 집중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말씀하신다. 인내심을 가져라.

6. 나의 기도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신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1~6).

자신이 무엇을 간구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의 요구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고 기쁘게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기도가 이기적이며, 죄악으로 빠뜨리는 것인가? 이런 모든 물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진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성령님께서 응답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의 말씀 듣는 법을 배운다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좀 더 가져라. 의문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증거다.

7.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방법은?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찾아야 한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거나 혹은 당신이 늦게 잠든다면, 모두가 잠든 후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주님께 집중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걸을 때에도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라.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라.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라. 또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다.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편 23편, 누가복음 4:18~19, 혹은 좋아하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라. 그리고 “주님, 제가 듣고 있어요.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 정결한 마음으로 침묵을 연습할수록, 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8.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걱정 하지 말라.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그 분의 시간에 그 분의 방법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약 30분간의 침묵이 천국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

시간 동안 요한은 천사의 작업을 보았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요한계시록 8:1~4).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려면 기도의 준비와 연습시간이 필요하다. 어린아이가 걷는 것을 배우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충분히 기다렸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명확히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듣기연습을 시작한 날을 세어보라고 권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냐가 중요하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정결케 할 일들을 말씀하시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다.

성경지식이 방대해 질 수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어린이 처럼 말이다. 성경읽기를 계속 하라.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도우며, 그 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9.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 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삶의 기본적인 형태를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주님께 순종하려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타인을 가르쳐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다. 예수님을 위한 영적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내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신앙간증, 작곡, 집필, 예술과 미디어 등 여러가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노숙자, 죄수 혹은 교회조직에 소속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당신이 주님을 섬기기 원할 때 주님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또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을 알아보라.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은 그것이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닌 지를 알려줄 것이다. 우리의 쓰임은 우리의 은사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다. 주님을 최대한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라. 더불어 주님을 어떻게 섬길 지를 알려주고, 조언할 수 있는 성숙된 교인을 찾아라. 당신이 섬길 때, 피곤함과 공허함, 불행함을 느낀다면 성령님이 당신이 받은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 있다. 주님께 바른 장소와 단체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

10. 들은 음성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의 마음에서 4가지 다른 음성들을 구별해야 한다. (1) 당신의 음성; (2) 타인의 음성; (3) 사탄의 음성; (4) 성령님의 음성.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음성을 구별해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사탄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은 당신을 죄악, 우울, 용기 없음, 시험과 고통에 빠뜨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배워라. 마귀를 음성을 따르는 삶은 고통과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다. 성령님은 “텔레비전 보는 것 대신 가서 기도하라,” “가서 성경을 읽어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라”와 같은 당신과 타인의 믿음을 키우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당신 자신과 타인의 믿음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뜻을 분

별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음성은 확신과 함께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언어 혹은 비언어적인 것들로 말씀하실 수 있다. 죄의 자각은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이다. 기도하고 듣는 시간을 더 가질 수록, 그 음성은 명확해지며, 음성 of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

11.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법

예수님과 다음과 같이 대화하며, 대화할 때는 독창적으로 하라.

- 당신을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라.
- 당신을 위해 어떤 헌신하는 절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라.
- 당신을 보살피는 가족의 일원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라.
- 당신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과 욕망에 대하여 대화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각을 이해하시고 도와 주시기를 원하신다.
-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라.
- 지혜, 지식, 이해력 등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 문제들에 대한 방향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

라. 마음에 있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러나 만약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만 나열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 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절반의 시간은 말하고 절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더 잘하게 될 것이다.
- 모든 것에 감사드려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시면 말씀하실 것이다.

12.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가?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몇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자동응답기처럼 생각할 때: 어떤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이다. 나 또한 이런 상태로 오래동안 지내 왔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종종 주님께 듣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

자동판매기라는 착각: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문을 한다. 그들이 요청한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작은 일들에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

할 때: 몇몇 사람은 하나님이 하찮은 것들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시편 50:1~7).

우리가 죄악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회개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역대하 7:14~15).

잘못된 것들을 간구할 때: 성경말씀은 우리가 죄악의 욕구에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

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3~4).

관계를 잘못 이해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구약이 쓰여진 시대에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위안을 주신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6:13~14).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많은 언어들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9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1.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 말론 빅스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13세부터였다. 내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응답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운전을 하는 도중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구운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 삼키려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며 호흡이 곤란해져서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친구에게 등을 두들겨달라고 눈짓을 했지만 알아 듣지 못한 친구는 쳐다보기만 했고 나는 문을 열고 나가서 차 뒷 트렁크를 간신히 붙들고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두려움이 덮쳐왔다.

그 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부르짖자 즉시 폐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숨을 쉬게 된 것이다. 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로부터 십년후,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한 아내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내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 얼마 후 13세인 아내의 아들로부터 문제가 생겼으니 데릴러 와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마침 차가 고장나

서 걸어갈 수 밖에 없었다. 걸어가며 나는 중얼거렸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군.”

5~10분 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가 숨 쉴 수 없을 때 했던 기도를 내가 들어 주었다”라는 크고 명확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렸다.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자리에서 서서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잊고 있었어. 이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멈추자.”

그날 내 마음에 울려 퍼지던 크고 명확한 음성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 일을 아내에게 말해주었고, 그녀는 “그것은 주님이 당신에게 말한 거야”라고 말했다. 목사인 삼촌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교회에 와서 간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울해지거나 걱정이 밀려올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 기억은 나와 나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감방동료는 물론 많은 이들과 이 경험을 나누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쓰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라. 당신이 기대하지 않을 때 응답이 올 것이다.”

2.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 레이레이 매뉴얼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8남 6녀의 형제가 있는 19세 여자다. 일곱살 때 가출한 나는 마피아 조직에 가담했

고 가족이 주지 않던 사랑과 관심을 그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속에서 대마초, 술, 마약, 총 쏘는 법,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의 삶을 배워나갔다. 내가 곤경에 처하기 전까지는 내게 관심 없는 가족들에 대해서 반항적이었다.

13살이 될 때까지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싸움을 일삼았고 스스로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다. 14살에는 헤로인 중독이 되었다. 나의 마음은 부서지고 망가져 혼돈 속에 지쳐 있던 어느 날 육체가 녹는 느낌이 들었다. 고통속의 비명과 눈물이 마르고 끝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더 이상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더 이상 반복되는 고통속에 살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지만 나 혼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부르짖는 순간 손이 나에게 다가왔다.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손을 잡아라. 이전의 것은 문제가 아니다.”

흰 옷을 입은,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분이 내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방에 들어서는데 순간 내 마음속의 짐이 모두 사라지고 행복함을 느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의사와 가족들이 나를 둘러서 있었다.

의사가 “삼 일이 지났고, 더 이상 그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그는 나에게 죽음을 선고했다. 나의 가족, 특히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 때 내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제발 날 내 가족으로부터 데려가지 마세요. 올바르게 살게요. 제발”이라고 말했다. 난 그의 발에 엎드려 울면서 빌었다. 깃털처럼 부드러운 손이 나의 등에 닿았다. 다시 나의 맥박은 건강하게 뛰기 시작했고 의사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다. 그날로 나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다. 지옥은 고통, 슬픔, 고뇌로 가득 찬 곳이다. 내가 증인이다. 나는 지옥이 천국처럼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내가 증인이다. 오랜 시간 애정결핍으로 목말라있던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언제나 사랑받고 있던 소중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내 삶은 순간이 감사로 가득 차있다.

결혼한 후 남편은 내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사랑을 주는 천사와 같다. 또한 나는 내가 아끼는 세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내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가족을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그들은 내 곁에 존재한다.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이다.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신다. 나는 천국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린도전서 13:11).

3.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 디 앤덜슨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녀 달동안 변호사의 도움이 없는 상태로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 있었고 변호사는 나의 법원기록을 거의 다 잃어버렸으며 겨우 두 번의 방문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나에게 10~16년 형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삶의 무게가 나의 어깨를 짓눌러왔다. 시간이 흘러 나의 재판 날이 다가왔다. 걱정은 의구심을 불렀고, 의구심은 공허함을 불러왔

다. 마음이 무거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빛을 보여 주시리라 생각했다.

2011년 8월 18일 목요일에 간수가 짐을 싸라며 나를 깨웠다. 제펠슨 카운티 교도소로 가는 이송명령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어맨다라는 여자와 같이 방을 쓰게 되었다. 그녀는 헤로인중독이었고 자녀들과 본인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 해주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 우리는 곧 4B로 이감되었는데 금발의 친절함 여성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침구와 옷을 가져다 주었다. 어맨다와 나는 벽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 방에 수감되었다.

밤이 되고 냉기가 느껴지는 벽에 가까이 기대어 그녀의 심각한 중독을 치유해 주실 것과 평안을 얻도록 천사를 보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동안, 반대편 벽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그 친절함 금발의 여성이 나에게 와서 “성령님이 당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밖에 없었다. “나에게 하는 말인가요? 무슨 뜻이죠?” 그녀는 내가 곧 출소해서 조직폭력과 약물중독 등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었다. 그녀는 나의 이름도, 죄목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놀라웠다. 그 후 매일 나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격려의 말들을 들으며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이름과 어떻게 나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데비에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성령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부르심

을 받은 거예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후 데비의 요청으로 기도모임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대부분의 여자들이 오열하며 울었고 많은 이들에게 포옹을 받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급속도로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아쉬움 속에 이별을 한 후 아담스카운티로 돌아왔다. 그 주에 간증문을 쓰고 낭독할 기회가 있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격려해주었다. 후에 나의 간증은 “최고의 성인들”이란 책을 통해 수만명이 읽게 되었고 그 밖의 다른 책에도 실리게 되었다. 성령님께서 데비에게 말씀해주신 일의 성취라고 믿는다.

나는 다시 제프코로 이감되었고, 법원에 출두했다. 데비에게 달려갔고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녀는 모두가 나를 보고 싶어했고, 내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기도모임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여러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그 중 하나는 어텐다가 건강한 육신과 정신을 갖게 된 것이다.

다시 아담스카운티로 돌아오자 목사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라고 제안하셨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할 지 막막했지만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시편 46:10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가만히 기다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곧 들을 것이다.

4. “조건없는 사랑” — 줄렛 와이어스

“네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

어디선가 그런 말이 들려왔다. ‘그래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할 때 다시 한 번 그 소리가 들렸다.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는 순간 통곡이 터져 나왔다. 슬픔과 고뇌의 눈물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나는 나쁘다’라는 생각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다. 나는 항상 실패자였고,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육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고 자랐으며 아버지와 주변사람들에게 저주의 말들을 들으며 성장했다.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니 나 자신과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계속되는 이 저주가 깨진 것은 사랑의 날, 발렌타이데이였다. 그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말씀하셨고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이런 놀라운 경험은 나의 마음을 속박하고, 괴롭히던 생각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예수님과 17년 동안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쓸모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죄책감을 극복하게 되었다.

나 같은 사람은 그 분의 사랑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거짓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며 조건이 없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신실하신 참사랑인 것이다. 불신이 찾아올 때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기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 시절 이후로 닫혀 있던 내 마음의 문을 성령님이 열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진심으로 나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

“줄겠, 나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나와 늘 함께하시는 것을 알기에 의심하지도 묻지도 않는다

성령님으로 인해 나는 자유롭게 살아있는 영을 느낀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변화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을 가만히 불러본다. 요한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36)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11).

10장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영희

1. 변화

어릴 때 아버지의 알콜중독과 학대로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과 싸워야했다. 설상가상으로 여동생이 비극적인 차 사고로 죽은 후, 침울해져서 몸져 누웠고, 악몽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그런 나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하셨고, 성경을 읽기시작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자 나의 내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밀려왔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성경은 내가 품고 있던 많은 의문들에 대한 답을 주었고 새로운 방향을 갖게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이해하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 수록 우울한 생각과 악몽은 사라지고 내 영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수원 신학교에 가게 되었다.

2. 의혹의 음성

성경말씀을 읽기 시작한 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라는 확인을 받게 되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던 차에 성경을 인용한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는 음성이었다. 어디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알 수 없었고 혼란스러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용서받아 자유함을 주는 평안의 음성이었으나 이 음성은 용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나를 고통속에 빠뜨렸다. 특히 내가 성경을 읽으려 할 때 더 크게 들렸다. 영적전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탄도 말씀을 이용해서 좌절과 낙담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찾은 평안을 방해하는 음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불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로마서 8:1~3).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13~14).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용서받았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용서를 받은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왔고 예전에 내가 나의 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자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은 나에게 쉬지 않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죄악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은 나를 농치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 비난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나는 성경말씀으로 대적했다. 결국 그 음성은 그쳤고 모든 참소의 속삭임이 멈췄다. 말씀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고통에 빠져 지낼 것이란 걸 알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3. 응답

비난의 음성으로부터 평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고뇌가 남아있었다. 완전한 평안이 없었고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음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해답은 왓치만 니가 쓴 『영적인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왔다. 그는 책에서 우리의 마음은 영적전쟁터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탄과 성령님의 음성 등 각기 다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 내 마음 속에 들리는 생각이 모두 내 생각이 아니란 사실을 아무도 내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내가 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악한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온전한 평안이 없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을 분별하고 의식을 조절하는

것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시작이었다. 또한 악한 음성은 내가 저항하고 대적하지 않는 한 저절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말씀에 따라 태도와 사고를 바꿔나가기 시작하자 우울함과 절망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4. 혼란의 음성

성경말씀으로 악한 음성과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함으로써 적극적인 대항을 하기 시작했다. 악한 음성은 꿈을 통해서도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3일 금식을 하며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데 훼방을 놓기 위해 악몽으로 나를 괴롭혔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틈을 타서 자살을 부추기기도 했다.

복잡한 문제를 끝내려면 자동차사고로 죽어버리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속삭였다. 내 마음속에 악한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도 내 생각이라 여기고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을 수 있었다.

또 한번은 어떤 이로 인해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울부짖고 있을 때 나를 화나게 한 장본인의 고함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둘러보았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나의 분노를 더욱 더 부추기고 혼란스럽게 하려는 사탄의 음성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는 즉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눈물을 멈추게 했으며 상황을 호전시키며 비참함에서 해방되

어 자유를 찾았다. 나는 계속 악한 음성에 대해 저항하고, 그 음성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배우고 있다.

5. 결핍

악한 음성과 대적하는 동안 성령님의 선한 음성을 소홀히 하고 듣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과 악한 음성에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배운적이 없었다.

둘째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 육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선한 음성과 생각들을 무시한 것이다.

세째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무지함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실 내가 주님께 나의 쓰임이 무엇인지 여쭙었을 때, 주님은 “듣는 것과 예수를 위한 치어리더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 매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6.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설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두 번이나 들었지만 사역

하기 싫어서 신앙간증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 책을 다 쓴 후에 주님의 일을 다 한 것이라 생각했다.

책을 끝내던 날, 하나님은 나에게 “가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죽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더라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정말 크고 뚜렷해서 내 눈에 단어들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성령님이 나에게 다른 임무를 주시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에 계속 들려오는 이 음성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다. “십일조처럼 하루에 십분의 일의 시간 동안 기도하라.” “일년 동안 4권의 복음서를 돌아가면서 매일 큰 소리로 읽어라.” “하나님께 말하지만 말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을 순종하면서 나의 마음에 평안이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음성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걷는 길』을 집필하는 동안 전에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돌봐야 하는 지 알게 되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단지 순종하는 것과 성령님이 나의 사역을 도와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그분의 끊임없는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7. 축복

성령님의 음성(선한 음성)을 따르기 시작한 후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 문서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 또 성령님의 힘으로 변화 된 많은 재소자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했다. 성령님께서서는 상상 이상으로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불러주신 것에 나는 항상 감사드린다.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결과는 행복감과 충만한 기쁨이다. 선한 음성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습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말하기 보다는 들으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TV시청, 심지어 좋은 음악 청취와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과, 그 분을 매일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되었다.

8. 인도

문서 선교는 나의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작은 행동, 사소한 계획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중단되었고 진행되는 법이 없었다. 한걸음 한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했다. 이 책이 그 좋은 예이다. 교회사역을 시작한 후 나에게 가장 쓰고 싶은 책이 무엇이나고 물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책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안타까워한다. 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그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책을 쓰도록 하셨다.

『영적부흥』이란 책이었는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재편집을 하라고 하셔서 『나는 산이었다』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다. 2011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 80% 이상 집필을 마쳤을 때 주님은 출판을 허락하지 않으

셨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쓰기 원하셨다. 설교형식으로 써여졌던 이 책에 대해 10%의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줄 뿐이라고 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글을 다시 쓰라고 하셨다. 그래서 다시 다른 형식인 『네가지 음성』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날 친구와 대화 중에 자기에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며 혹시 그것에 대해 쓴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네가지 음성』을 초고를 출력해서 그녀에게 주었다.

약 석달 후, 책을 언제 끝낼 것인지 묻는 그녀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나의 초고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데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읽어야 한다면 편집하는 것을 도와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전화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다시 책을 마무리 하기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책을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기뻐다. 왜냐하면 여러 음성들을 분별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왔고 인생을 바꾼 계기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1)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시며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음성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 졌다.

(2)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나를 내려다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

(3)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매일매일의 문제들에 짓눌리는 것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나를 도와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4) 나의 사역을 주관하시고 원하는 방향을 음성으로 알려주신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축복이다. 온전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 주시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책을 쓰거나 집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는 능률적인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 주신다. 결국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함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

(5)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부족한 지혜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후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며, 내가 할 일은 단지 그 분께 도와 달라고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쓸데 없이 나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 주셨다. 내가 간구할 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9.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22후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살면서 나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내 계획은 나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의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이다. (이사야 55:8~9).

이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주님, 제가 당신의 마음을 닮아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당신 정원의 장미처럼 저의 사랑이 자라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0. 은혜

나의 사역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으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언제나 더 큰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며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발걸음을 옮겨주신다. 한인을 위한 문서 선교가 그 한 예이다. 남편이 미국인 목사였으므로 오랜동안 한인사회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국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 사실 너무 오랜 시간 동떨어져있던

사람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십년이 지난 2012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를 한국인 한 수감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시작하겠느냐고 물어보셨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죽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믿는다.

그런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한인 교도소 문서 선교의 문을 두드리라고 인도해 주신 것이다. 순종은 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영어로 쓴 책들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네가지 음성』 책은 다른 신앙간증 책과는 달라서 내가 번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중 브라이튼시 한인들의 목장모임에서 만난 박연수씨가 『네가지 음성』 책을 번역을 자원봉사로 해 주셨다. 그분이 아니면 이 책은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가 쓴 모든 책들을 번역해서 한국의 교도소와 노숙자를 위해 선교용으로 배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고 큰 부담감을 안은 채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예수님, 나에게 주신 사역의 짐이 너무 큼니다. 왜 저 같이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지요?”

“딸아, 그건 네 짐이 아니고 나의 짐이다.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을 네가 느끼게 해준 것 뿐이야. 너의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

그 사역의 짐이 내 몫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번역과 수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수감자들과 노숙자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

시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나의 마음에 고요한 음성으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한다. 나 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나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격려를 받는다. 오늘도 나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삶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입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당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와 같이 이 문서 사역을 돕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록

<예수님께로 초대>

여러분은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사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기도로 그분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성경을 읽어야 좋을지 모르신다면 신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를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시려면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예수님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게서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며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저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도 더 알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저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

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4:1~6).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7).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18).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31~32).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변화 프로젝트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2005년에 설립된 변화 프로젝트는 감옥 문서 선교 비영리단체로서 12만권도 넘는 책들과 비디오들이 미국 전역으로 교도소, 형무소 그리고 노숙자 보호소에 목사들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아담스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의 신앙간증을 엮은 책이 영어로 6권, 스페인어로 2권이 출판 되었고, 비디오 영화가 4편이 제작되었습니다. 변화 프로젝트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초점으로 하는 소망의 문서 선교입니다. 변화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표를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로 쓰시고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5209 Mountview Blvd., Denver, CO 80207

홈페이지: www.transf@gbgmchurches.gbgm-umc.org

이메일: tppm.ministry@gmail.com

yonghui.mcdonald@gmail.com



PRISON MINISTRY

2013년에 한국에서 변화 프로젝트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연락처: 이 본 목사, 변화 프로젝트 부장

하늘문교회, 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1388-15, 우편번호 405-840

Cell: 010-2210-2504, 교회전화: 070-8278-2504

이메일: leeborn777@hanmail.net

홈페이지: <http://blog.daum.net/hanulmoon24>

하늘문선교회

하늘문선교회는 지극히 작은자에게 사랑과 소망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교포형제, 자매들, 미국교도소에서 이송된 형제, 혹은 추방자, 교도소접견, 교도소집회간증, 문서 선교를 통한 신앙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48-401-04-062403

<예금주 이 본>

이 본 목사, 하늘문선교회 회장

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1388-15, 우편번호 405-840

Cell: 010-2210-2504, 교회전화: 070-8278-2504

이메일: leeborn777@hanmail.net

홈페이지: <http://blog.daum.net/hanulmoon24>

홈페이지: <http://blog.daum.net/leeborn777>

재향 군인회 재단

(Veterans Twofish Foundation)

2011년 재향 군인회라는 비영리단체가 설립되어서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의 신앙간증 책을 출판하여 미국 전역으로 교도소, 형무소, 노숙자 보호소 그리고 군인들에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재향 군인회를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표를 Veterans Twofish Foundation으로 쓰시고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Veterans Twofish Foundation

P.O. Box 220, Brighton, CO 80601

홈페이지: veteranstwofish.org



저자소개

-이영희-

(Yong Hui V. McDonald also known as Vescinda McDonald)

- 수원장로교 신학교 졸업 (1979년)
- Multnomah University, Portland, Oregon 졸업 (1984년 못노마 대학, 오레건주 학사학위 이수)
- Iliff School of Theology, Denver, Colorado, Master of Divinity 졸업 (2002년 아일랴 연합감리교 신학대학원, 석사 학위 이수)
- Denver Women's Correctional Facility Intern Chaplain (2000~2001년) (덴버 여자 감옥 목회자 인턴쉽)
- Iliff Student Senate and Prison Ministry Coordinator (1999~2002년) (사회활동 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감옥 선교를 시작함)
- Smoky Hill United Methodist Church (2001~2002년)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 인턴쉽)
- Memorial Hospital, Colorado Springs, Colorado, Chaplain Intern Ship (2002년) (병원 목사 인턴쉽)
- St. Joseph Hospital, Denver, Colorado (2002년~현재 병원에서 목사로 재직)
-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Chaplain, Brighton, Colorado (2003~현재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서 목사로 재직)
- 2005년 감옥 문서 선교 비영리단체를 설립함. 변화 프로젝트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를 설립하여 12만권도 넘는 책들과 비디오들이 미국 전역에 교도소, 형무소 그리고 노

숙자 보호소에 목사들을 통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스카운티 교도소 재소자들의 신앙간증을 엮은 책이 영어로 6권, 스페인어로 2권이 출판 되었고, 비디오 영화가 4편이 제작되었습니다.

- 2008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소천한 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상처 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인 치유를 돕는 문서 선교 (Griefpathway Ventures LLC)를 2010년에 설립하여 그에 관한 책들이 영어와 스페인어 또 한국어로 출판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www.griefpathway.com
- 2011년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의 신앙간증을 발행하는 재향 군인회 재단 (Veterans Twofish Foundation)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의 신앙간증을 출판하고 미 전역으로 교도소, 형무소 그리고 노숙자 보호소에 목사들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About The Author

Yong Hui V. McDonald, also known as Vescinda McDonald, is a United Methodist minister, chaplain at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ACDF) in Brighton, Colorado. She is a certified American Correctional Chaplain, spiritual director and on-call hospital chaplain.

She is the founder of the following:

-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TPPM), a 501(c)(3) non-profit, in 2005. TPPM produces Maximum Saints books and DVDs of ACDF saints

stories of transformation and they are distributed freely to prisons, and homeless shelters.

- GriefPathway Ventures LLC, in 2010, to produce books, DVDs, and audio books to help others to process grief and healing.
- Veterans Twofish Foundation, a 501(c)(3) non-profit, in 2011, to reach out to produce books written by veterans and veterans' families to reach out to othe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Education:

- Suwon Presbyterian Seminary, Christian Education (1976~1979)
- Multnomah University, B.A.B.E. (1980~1984)
- Iliff School of Theology, Master of Divinity (1999~2002)

Books and Audio Books by Yong Hui:

- *Journey With Jesus, Visions, Dreams, Meditations & Reflections*
- *Dancing In The Sky, A Story of Hope for Grieving Hearts*
- *Twisted Logic, The Shadow of Suicide*
- *Twisted Logic, The Window of Depression*
- *Dreams & Interpretations, Healing from Nightmares*
- *I Was The Mountain, In Search of Faith & Revival*
- *The Ultimate Parenting Guide, How to Enjoy Peaceful Parenting and Joyful Children*
- *Prisoners Victory Parade, Extraordinary Stories of Maximum Saints & Former Prisoners*

- *Four Voices, How They Affect Our Mind: How to Overcome Self-Destructive Voices and Hear the Nurturing Voice of God*
- *Tornadoes, Grief, Loss, Trauma, and PTSD: Tornadoes, Lessons and Teachings—The TLT Model for Healing*
- *Prayer and Meditations, 12 Prayer Projects for Spiritual Growth and Healing*
- *Invisible Counselor, Amazing Stories of the Holy Spirit*
- *Tornadoes of Accidents, Finding Peace in Tragic Accidents*
- *Tornadoes of Spiritual Warfare, How to Recognize & Defend Yourself From Negative Forces*
- *Lost but not Forgotten, Life Behind Prison Walls*
- Compiled and published *Tornadoes of War, Inspirational Stories of Veterans and Veteran's Families* under the Veterans Twofish Foundation.
- Compiled and published five *Maximum Saints* books under the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DVDs produced:

- *Dancing In The Sky, Mismatched Shoes*
- *Tears of The Dragonfly, Suicide and Suicide Prevention* (Audio CD is also available)

Spanish books:

- *Twisted Logic, The Shadow of Suicide*
- *Journey With Jesus, Visions, Dreams, Meditations and Reflections*

Korean books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

- 『예수님과 걷는 길, 비전, 꿈, 묵상과 회상』
(*Journey With Jesus, Visions, Dreams, Meditations & Reflections*)
- 『치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Dancing In The Sky, A Story of Hope for Grieving Hearts*)
- 『꿈과 해석, 악몽으로부터 치유를 위하여』
(*Dreams & Interpretations, Healing from Nightmares*)
- 『나는 산이었다, 믿음과 영적 부흥을 찾아서』
(*I Was The Mountain, In Search of Faith & Revival*)
-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라, 자살의 돌풍에서 치유를 위하여』
(*Twisted Logic, The Shadow of Suicide*)
- 『승리의 행진, 미국 교도소와 문서 선교 회상록』
(*Prisoners Victory Parade, Extraordinary Stories of Maximum Saints & Former Prisoners*)
- 『네가지 음성, 악한 음성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훈련』 (Four Voices, How They Affect Our Mind)

그린이 소개

-박영득-

박영득 (Holly Weipz)은 콜로라도 주 브라이언트에 있는 성 어거스틴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특히 성체조배와 그림,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원봉사자입니다.

Holly Weipz, a resident of Brighton Colorado, is a participant of the City of Brighton's Artist on Eye of Art Program. She is a member of St. Augustine Catholic Church and enjoys drawing and painting.

역자 소개

-박연수-

- 한국외국어 대학교 무역학과
- 이수건설 주택사업팀
- Songs Elite Martial Arts Academy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실장
- Fellowship Church/ Fellowship 교회 섬김